

ABARES 2017 농업전망: 원예부문 *

이 수 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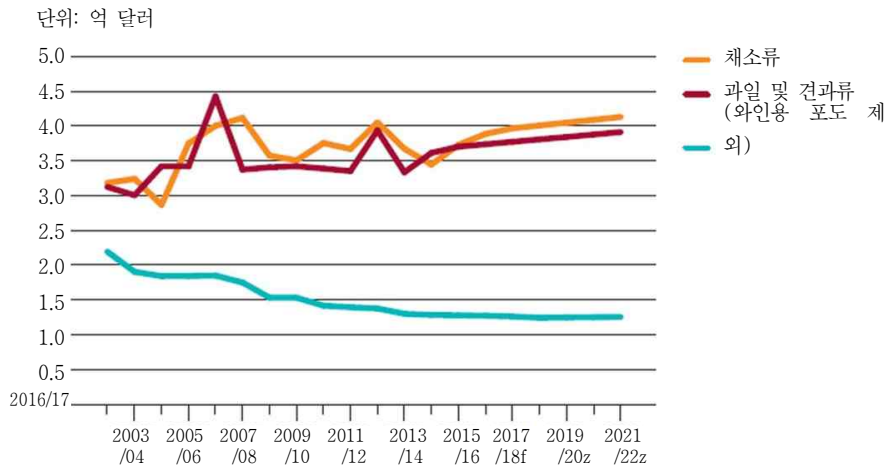
1. 2017년 호주 원예부문(Horticulture) 수급 전망

호주의 원예 생산액은 유통연도를 기준으로 2015/16년에는 93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그 이후에도 점차 증가하여 2021/22년에는 약 100억 달러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와인용 포도를 제외한 과일, 견과류, 채소류 등 신선 원예 작물의 수요 증가와 자유 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인하 등으로 원예 수출 여건이 점차 호전되어 중장기 관점에서 원예 생산액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종묘장, 화훼, 잔디 생산액은 2021/22년까지 약 13억 달러에 달하여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원예 부문의 단기 생산량 전망은 특히 관개된(Irrigated) 원예 품목의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6년에는 전역에서 이례 없이 많은 봄비가 내려 저수지 수위(Water storage levels)가 매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호주 남동부 머레이강(Murray river)과 달링강(Darling river) 주변 분지의 저수지 용량이 2017년 1월 말 기준으로 79%를 나타내어 작년 동기간의 37%에 비해 매우 높았다. 한편, 2016년 11월 이후 머레이(Murray)와 무럼비지(Murrumbidgee)지역의 저수지 평균 보안용수 할당량(Security water allocations)은 100%로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 (suhwan8352@krei.re.kr). 본고는 호주 농업·수산업·임업분야의 정책연구기관인 호주농업자원경제과학국(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nd Sciences, ABARES)의 2017년 농업전망을 바탕으로 작성됨.

그림 1. 호주의 원예 분야 생산액 동향(2002/03년~2021/22년)



주: f 는 호주농업자원경제국(ABARES)의 전망치이고, z 는 호주농업자원경제국 추정치임.

자료: 호주농업자원경제국(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7).

2. 원예 수출 확대를 위한 자유무역협정

호주의 2015/16년 원예 부문 수출액은 27억 달러였으며, 2021/22년에는 33억 달러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일본, 한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호주산 원예 품목의 수출 관세율은 점차 인하되고, 이로 인해 호주 원예 산업의 수출 경쟁력은 점차 향상되기 때문이다. 호주-중국 FTA는 2015년 12월에 발효되었고, FTA 발효 후 약 1년 동안의 對 중국 원예 수출액은 FTA 발효 전보다 약 68% 증가하였다. 또한, 2014년 12월에 발효된 한국-호주 자유무역협정도 발효 된지 2년 만에 한국으로의 원예 수출액이 약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호주산 원예 품목의 중장기 수출 전망은 ① FTA 이행에 따른 수출 관세율 인하(또는 철폐), ② 새롭고 향상된 원예 기술시장의 접근, ③ 호주 달러 약세 등으로 수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의 원예부문 수입은 원예 가공식품의 수요 증가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원예 부문 수입의 약 78%를 차지하는 가공과일과 가공채소는 2015/16년에 약 18억 달러를 수입하였으며, 호주 달러의 약세 등으로 향후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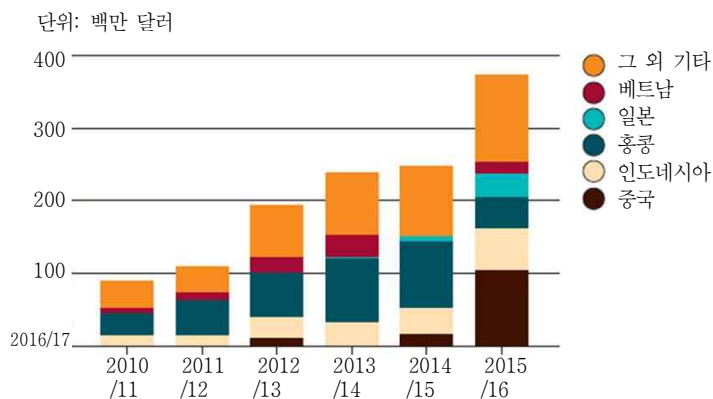
호주의 신선 과일과 채소류 교역 동향은 과일과 채소 생산이 많은 시기(계절)에는 공급 초과가 발생하여 수출이 이루어지는 반면, 그 외 시기에는 주로 신선 과일·채소를 수입하여 소비한다. 신선 농산물 수요는 1년 내내 지속되고, 신선 과일·채소가 출하되는

시기 이외 기간에는 신선한 농산물을 직접 구매할 수 없어 수입품으로 대체하기 때문이다.

3. 과일 및 견과류 수급 전망

호주의 2016/17년 과일¹⁾과 견과류 생산액은 전년대비 2% 증가한 37억 달러로 전망되며, 2021/22년에는 3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생산액 증가 전망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과일과 견과류의 수출액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특히, 주요 수출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한 수출 관세율 인하 효과는 호주의 과일과 견과류 수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림 2. 호주의 생식용 포도(table grape) 수출 동향(2010/11년~2015/16년)



자료: 호주농업자원경제국(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7).

3.1. 과일

과일 수출액은 2016/17년에 12억 달러에서 2021/22년에는 15억 달러로 약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 달러의 약세, 중국·일본·한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관세 감축 등 아시아 국가로의 수출 기회 요소들이 점차 개선되어 과일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과일 생산량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16년 과일 수출액은 11억 달러로 최근 5년 동안 5억 달러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는 2000/01년부터 2009/10년까지 약 10년 동안 수출액이 감소한 것과 비교되는 성과이다.

1) 과일 생산액은 와인용 포도를 제외한 생산액임.

호주는 2015/16년에 1억 9,000만 달러의 과일을 중국으로 수출하여 과거 20년 동안 최대 수출국이었던 홍콩(1억 7,300만 달러)을 제치고 최대 과일 수출국으로 성장하였다. 중국으로의 과일 수출액은 2014/15년에 전체 과일 수출액의 9%를 차지하였지만, 2015/16년에는 18%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등도 호주의 주요 과일 수출 대상국이다.

호주는 2015/16년에 생식용 포도(Table grape)를 가장 많이 수출하였으며, 그다음은 오렌지, 만다린(감귤류), 체리 순이다. 생식용 포도는 2015/16년을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수출이 증가하였다.

2013/14년 신선 포도의 두 번째 수출 대상국은 베트남이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2015년부터 호주산 신선 포도에 대해 생물안전성 규제(Biosecurity restrictions)를 취함으로써 호주산 신선 포도 수입을 일시 금지 하였다. 베트남의 호주산 신선 포도 수입 금지 조치는 2015년 7월에 해제되었고, 그 후 호주산 신선 포도 수입을 재개하였다. 그리고 일본,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2014년부터 생식용 포도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호주의 과일 수입액은 2015/16년 13억 달러를 기록하여 같은 기간 과일 수출액보다 약 2억 달러 이상 수입하였다. 호주의 과일 수입은 주로 과일 통조림이나 냉동 과일 등 가공 과일의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호주 내 가공 과일 생산 비용이 비교적 높기 때문이다.

신선 과일 수출액은 2015/16년 9억 8,800만 달러로 2010/11년에 비해 약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는 신선 과일 수입액을 5억 2,000만 달러 초과한 수치이다. 2015/16년 호주의 주요 신선 과일 수입 품목은 신선 포도(6,600만 달러), 아보카도(6,400만 달러), 키위(5,000만 달러) 등 계절적 교역 거래가 포함된다. 2015/16년 가공 식품 수입액의 3분의 2는 가공 과일 수입이 차지하였으며, 주로 뉴질랜드, 미국, 중국에서 수입한다.

3.1.1. 감귤류(Citr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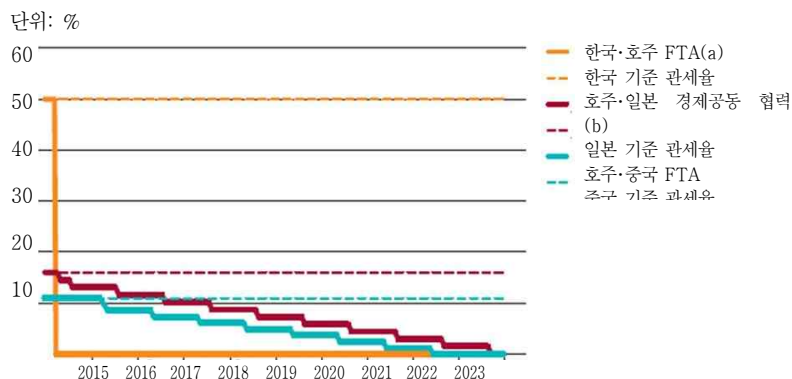
호주의 오렌지 생산량은 2012/13년과 2014/15년에 작황 부진에 따른 단위 면적당 수확량 감소로 평년보다 6만 2,000톤 감소한 33만 8,000톤이었다. 최근 오렌지 주스에 사용되는 농축물의 수익성 저하로 주스에 주로 사용되는 발렌시아(Valencia) 오렌지 생산량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네이블(Navel) 오렌지 생산량은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오렌지 과수원에서 발렌시아 오렌지 나무 대신 네이블 오렌지 나무로 바뀌고 있어 향후 네이블 오렌지 생산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0/11년 이후 오렌지 나무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중기 전망에서도 오렌지 나무 수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2016/17년에는 최근 식재한 오렌지 나무의 단수 증가로 오렌지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오렌지 나무 수가 감소함에 따라 오렌지 생산량은 2021/22년까지 약 31만 5,000톤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호주의 만다린 생산 동향을 살펴보면, 과거 식재한 만다린 나무에서 과실이 맺기 시작하면서 2008/09년부터 2014/15년까지 연 평균 2%씩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만다린은 2014/15년에 10만 1,000톤이 생산되었으며, 2021/22년까지 생산량이 점차 증가하여 약 13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는 2017/18년에 약 22만 톤의 감귤류를 수출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015/16년 수출량과 비교하면 약 3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수출 증가 요인은 호주산 수출용 감귤의 품질 향상과 아시아 국가의 호주산 감귤에 대한 수요 증가로 판단된다. 한편, 2015/16년에는 일본, 홍콩, 중국 등으로 가장 많은 감귤을 수출하였으며, 아시아 국가의 호주산 감귤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 수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중국과 일본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호주산 감귤류 관세 인하로 호주산 감귤의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주요 호주산 오렌지 수입국의 관세 인하 스케줄(2014년~2024년)



주: a 는 4월과 9월 사이의 계절관세이고, b 는 6월과 11월 사이의 계절관세임.

자료: 호주농업자원경제국(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7).

3.1.2. 사과(Apple)

사과 생산량은 2004/05년부터 2014/15년까지는 연차별로 다소 변동성을 나타냈지만, 약 30만 톤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2021/22년까지는 현재 수준의 생산량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16년 호주의 사과 수출량은 전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여 총 4,700톤에 이르며, 수출액은 약 1,200만 달러에 달하였다. 특히 사과 수출 증가분의 50%는 태국과 영국이 차지하였으며, 그 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로의 수출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한편, 호주의 사과 수입량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2015/16년에는 619톤을 수입하여 전년도 사과 수입량인 751톤에 비해 감소하였다.

3.1.3. 바나나

호주는 2016/17년에 약 37만 톤의 바나나를 생산하여 2015/16년 추정된 결과치보다 약 3%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에 기상 조건이 양호하여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증가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인구 수 증가에 따른 바나나 수요 증가 등으로 2021/22년까지 바나나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바나나 생산량 단기 및 중기 전망은 병충해 및 기상 이변에 대한 위험 등으로 다소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파나마병(Panama disease)과 TR4(Tropical race 4)는 매우 위험한 전염병으로서 바나나 나무를 시들게 하고 과일의 상품성을 떨어뜨린다. 또한, 균류 포자 (Fungus spores)는 수년 동안 토양에서 생존 할 수 있어 박멸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질병들은 2015년 3월에 호주 텔리(Tully) 바나나 농장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호주 정부는 질병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한 검역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전체 바나나 생산량 감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질병들의 발병은 중기적 전망으로 볼 때 바나나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호주에서 생산되는 바나나는 주로 내수용으로 사용되며, 극히 일부만 수출한다. 수입산 신선 바나나는 여전히 생물학적인 안전 위험이 존재하여 호주 정부에서는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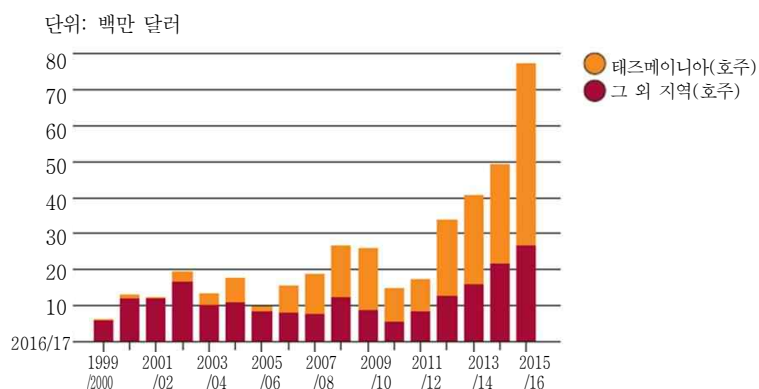
3.1.4. 체리(cherries)

호주의 체리 수출은 2010/11년 1,500만 달러에서 2016/17년에는 7,5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호주와 칠레 등 남미 국가들은 같은 시기에 체리를 생산하고 있어 체리 수출 경쟁국에 속한다. 하지만, 항공료 운임이 점차 낮아지면서 호주의 체리 수출업체들은 남미의 체리 수출업체들에 비해 아시아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갖추게 되었다.

2015/16년 태즈메이니아산 체리(Tasmanian cherries)가 병해충이 없는 상태로 생산되어 다른 주에서 재배되는 체리보다 약 80% 정도의 프리미엄이 적용되어 거래되었다. 태즈

메이니아산 체리의 가격은 약 17.42달러/kg로 호주 내 평균 가격인 9.57달러/kg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과 한국은 현재 과일 초파리 위험으로 인해 호주 본토에서 생산되는 체리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일부 체리 수입국들도 초파리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 재배되고, 온도를 기반으로 세척된 체리만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과일 초파리 흔적을 추적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은 근절 비용을 줄이고 호주 본토에서 여러 시장으로의 수출 용이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비용이 더 적게 드는 과일 초파리 제거 기술과 아시아 국가의 체리 수요 증가는 중기적 관점에서 볼 때 호주산 체리의 지속적인 수출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 호주의 태즈메이니아 및 그 외 지역의 체리 수출 동향(1999/2000년 - 2015/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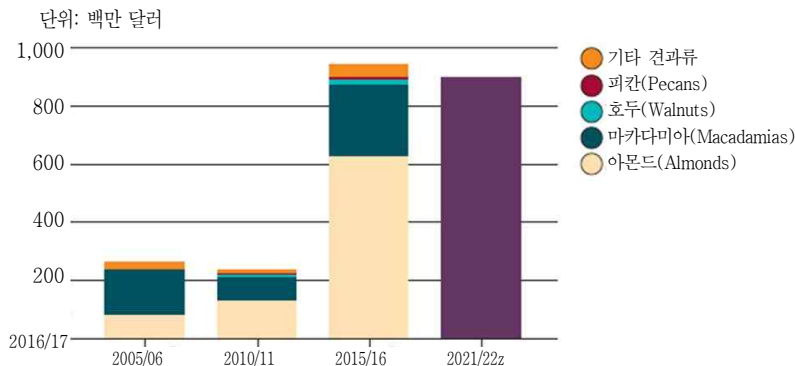
자료: 호주농업자원경제국(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7).

3.2. 견과류

호주의 견과류, 특히 아몬드와 마카다미아의 생산량은 2010/11년부터 2014/15년까지 크게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아몬드 생산량은 83% 증가하여 6만 3,000톤이며, 마카다미아 생산량은 38% 증가하여 4만 톤이다. 2000년대 후반에 식재한 견과류 나무가 성숙하여 열매를 맺을 때 까지 견과류 생산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16년 견과류 수출액은 최근 5년 동안 약 4배 이상 증가하여 9억 4,500만 달러이다. 또한, 2016/17년 견과류 수출은 전년 보다 감소하여 7억 6,000만 달러로 전망되며, 이 수치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견과류 수출액이다. 한편, 미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캘리포니아의 가뭄으로 인해 견과류 생산 및 수출에 일정 부분 제한 요소로 작용하였지만,

그림 5. 호주 견과류 수출 동향(2005/06년 - 2021/22년)



자료: 호주농업자원경제국(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7).

올해부터는 미국과 견과류 수출 경쟁이 본격 재개 될 예정이다. 호주의 견과류 수출은 2021/22년까지 약 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중기적으로는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3.2.1. 아몬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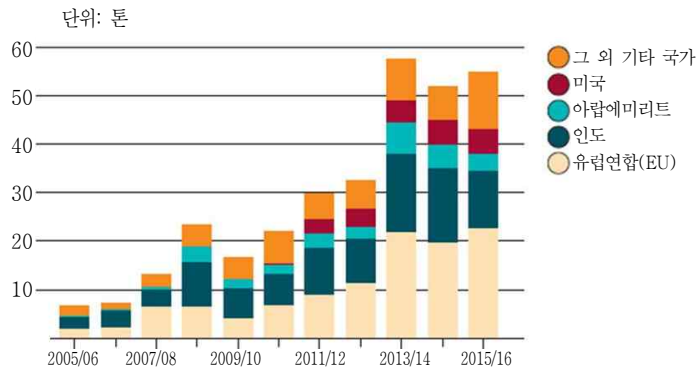
2006년과 2007년에 아몬드나무를 대규모로 식재하여 최근 5년 동안 아몬드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2015/16년에는 약 8만 톤의 아몬드(탈각 기준)가 생산되었으며, 단수가 증가함에 따라 2021/22년까지 9만 톤 이상의 아몬드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의 아몬드산업은 수출 지향적이며, 2015/16년 아몬드 생산량의 약 3분의 2를 다른 국가에 수출하였다. 호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아몬드를 많이 수출하는 국가이다. 하지만 2015/16년 호주의 아몬드 수출량은 미국 아몬드 수출량의 10% 미만인 약 5만 5,000톤에 불과하였다. 인도와 스페인은 2015/16년에 호주의 아몬드 최대 수출시장이 되었다.

2014년 중반부터 2015년 중반 사이에 미국 캘리포니아의 가뭄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호주의 아몬드 가격은 60% 이상 상승하였다. 만약 캘리포니아의 물 부족이 해결되어 생산량을 회복할 경우, 호주의 아몬드 가격은 중기적으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의 아몬드 수출은 세계 아몬드 소비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1/22년까지 약 6만 5,000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유럽연합(EU)은 아몬드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경제 공동체로서 2005/06년부터 호주의 아몬드 수출시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2015년 11월 호주 정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호주산 아몬드에 대한 수입 관세율은 미국산 아몬드와 마찬가지로 낮은 상태이므로 자유무역협정(FTA)

그림 6. 호주 아몬드 수출 동향(2005/06년 - 2015/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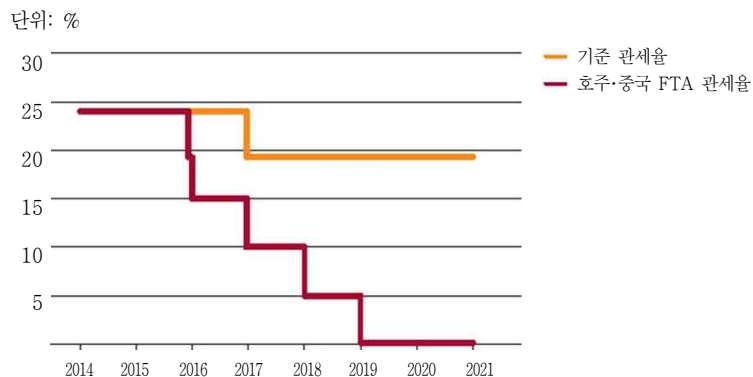
자료: 호주농업자원경제국(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7).

체결로 아몬드 수입 관세율을 낮추거나 철폐하는 것이 미국산 아몬드에 비해 상당한 경쟁 우위를 가져다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3.2.2. 마카다미아

호주의 마카다미아 생산량은 2003/04년부터 2013/14년까지 약 10년 간 3만 톤 수준을 유지하다가 그 후 마카다미아 나무를 더 많이 식재하여 2014/15년에는 4만 톤으로 증가하였고, 향후에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7. 중국의 호주산 마카다미아 수입 관세 인하 스케줄(2014년~2021년)



자료: 호주농업자원경제국(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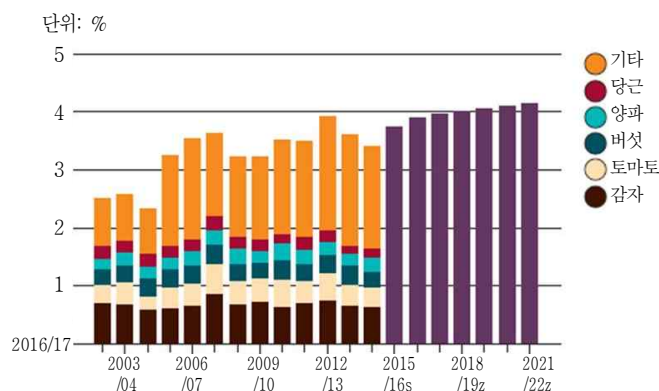
호주는 마카다미아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이다. 2015/16년에는 중국으로 5,500만 달러를 수출하여 중국이 호주의 가장 큰 마카다미아 수출시장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호주는 중국과 FTA를 체결하였고, 호주산 마카다미아의 수출 관세율은 기준 관세율 24%에서 2019년에 완전 철폐할 예정이다. 한편, 중국 정부는 2017년 1월부터 마카다미아 수입 관세율을 종전 24%에서 19%로 인하할 것으로 발표하였다. 하지만 중국에서 호주산 마카다미아에 적용하는 수입 관세율은 FTA 협정에 따른 관세율 인하로 2017년 현재 9.6% 수준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적 낮아 중국 시장에서 호주산 마카다미아는 경쟁적 우위를 가질 것을 전망된다.

4. 채소

호주의 2015/16년 채소 생산액은 약 37억 달러로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수출 수요의 확대로 채소 생산액은 더욱 증가하여 2021/22년에는 4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16년 채소 수출액은 감자, 당근, 아스파라거스 등의 수출 증가로 전년대비 16% 증가한 3억 4,9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체결한 FTA로 주요 채소 수출시장의 접근성이 좀 더 용이해 졌으며, 수출 관세율 인하는 호주의 채소 수출 증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2016/17년 채소 수출액 전망은 전년대비 10% 증가한 3억 8,500만 달러로 예상하며, 수출 실적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1/22년에는 약 5억 달러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8. 호주 채소류 생산액 동향(2002/03년 ~ 2021/22년)



자료: 호주농업자원경제국(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7).

2015/16년 채소 수출액의 약 70%는 당근, 감자, 아스파라거스, 양파 등 신선 채소위주이며, 주요 채소 수출대상국은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일본, 말레이시아 등이다. 2015/16년에 2억 3,000만 달러의 신선 채소를 수출하였으며, 이는 호주의 신선 채소 수입액의 약 2배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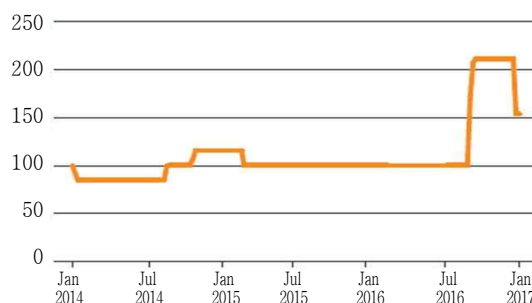
호주의 2015/16년 신선 채소 수입액은 전년보다 약 9% 증가한 8,5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호주의 주요 신선 채소 수입 품목은 마늘, 버섯과 계절 무역을 통해 수입하는 아스파라거스 등이며, 주요 수입 대상국은 중국과 멕시코 등이다. 호주의 가공 채소 수입은 대부분이 가공 감자와 기타 가공식품 형태이며, 2015/16년에는 가공 채소가 10억 달러 수입되어 전년대비 9% 증가하였다.

4.1. 감자

호주의 감자 생산량은 최근 15년 동안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4/15년에 약 120만 톤이었다. 감자 생산량 감소는 감자 가공업체의 호주산 감자에 대한 수요 감소 때문이다. 2014/15년에는 가공 감자의 약 절반 정도만 호주에서 생산된 감자를 사용하였다. 또한, 가공 감자 생산에 필요한 감자의 수입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공용 감자의 생산량은 2021/22년에 약 110만 톤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며, 감자 가공 산업은 지속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감자 가격²⁾은 2016년 9월 중순부터 2017년 1월 중순 사이에 약 두 배 이상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가격 상승세는 향후 1년 동안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기상 악화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호주의 감자 주산지 생산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016년 호주의

그림 9. 호주 감자 가격 지수 동향(2014년 1월~2017년 1월)



자료: 호주농업자원경제국(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7).

2) 감자 가격은 세척감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태즈메이니아 북서부 지역과, 2016년 10월 SA리버랜드와 머레이 지역에서 발생한 폭우와 국지적 홍수는 감자 생산량 감소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호주 정부는 생물안전성 위험(Biosecurity risks)을 이유로 신선 감자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으며, 이로 인해 생산량 감소 부분을 수입으로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감자 공급량 감소는 단기적으로 감자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감자 생산량은 작황 회복으로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감자 가격도 점차 낮아질 전망이다.

4.2. 브뤼셀 스프라우트(Brussels sprouts)

호주의 브뤼셀 스프라우트 수출은 2014/15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브뤼셀 스프라우트의 수출단가는 아시아 국가의 수요 증가와 호주 달러 약세 등으로 최근 10년 동안 약 두 배 이상 상승하였다. 또한, 최근 FTA 체결로 인한 수출 관세율 인하는 호주의 브뤼셀 스프라우트의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호주 FTA가 2014년 12월에 발효된 이후 호주산 브뤼셀 스프라우트에 적용되던 수입 관세율은 WTO 기준 관세율 27%에서 2017년 11.5%까지 하락하였다. 한국은 호주의 브뤼셀 스프라우트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호주산 브뤼셀 스프라우트의 수입 관세율이 완전 철폐될 예정이므로 중기적 관점에서 한국은 호주의 중요한 브뤼셀 스프라우트 수출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다.

참고문헌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ABARES). 2017. *Agricultural commodities: Horticulture Outlook to 2021-22*. ABARES.